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5월 22일

CUOMO 주지사, 대학 공동체를 새 비즈니스와 투자를 위한 자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주요 경제 개발 계획 공개

Tax-Free NY에 의거 신규 기업은 SUNY 캠퍼스에서 무과세로 10년 동안 조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SUNY 캠퍼스와 뉴욕주 전역의 대학 공동체를 전세계로부터 신생 기업, 벤처 자본, 새 비즈니스 및 투자를 유치하는 면세 공동체로 전환시킬 획기적인 계획인 “Tax-Free NY”를 공개하였습니다.

Tax-Free NY는 신규 기업에 직원 소득세 면제, 판매세, 재산세 또는 영업세의 면제를 포함하여 완전 무과세로 조업할 기회뿐만 아니라 SUNY 시스템에서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과 제휴할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벤처를 북부 뉴욕주로 데려오도록 유인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중산층 세율을 60년래 최저 세율로 삭감하고 소기업 세금을 삭감하였으며 동시에 전례 없이 우리 고등교육 기관에 투자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실업은 몇 년래 가장 낮고 뉴욕주의 민간 부문 일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등 우리는 우리 노력의 결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Tax-Free NY는 북부 뉴욕주의 지자체들을 새 비즈니스와 새 일자리를 위해 사실상 무과세 커뮤니티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Tax-Free NY에 의거 주 북부 지역의 커뮤니티들은 새 비즈니스, 신생 기업, 새 벤처 자본 및 새 일자리를 위한 자석이 되어 우리의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전에 보지 못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임시 의장인 Dean G. Skel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뉴욕인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를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 우리가 다른 주들로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를 위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우려사항 중 대다수의 해법은 더 많은 일자리의 필요성인데, 본인은 우리가 나머지 회기를 민간 부문에 힘을 불어넣고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삭감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orean

상원 다수당 연합 공동리더인 Jeffrey D. Kl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아주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좋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세 구역은 이 노력에서 다음 미개척지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실업 및 할 일이 충분하지 않은 뉴요커들에게 일자리와 상향 이동성을 제공하면서 우리 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을 위해 더 밝은 경제적 미래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원의장 Sheldon Silv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칼리지, 유니버시티 및 커뮤니티 칼리지는 뉴욕의 가장 큰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미는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Tax Free New York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비어 있는 캠퍼스 공간과 땅을 경제 활동 영역 주위에 솟아나는 새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기회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을 모델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들의 학문적 사명을 고양하고, 지역 졸업생이 고향에서 보람 있는 기회를 발견하도록 하며, 신홍 기술의 진보를 촉진할 것입니다.”

SUNY 총장 Nancy Zimph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은 SUNY가 뉴욕주를 위한 경제 엔진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새 면세 구역은 우리 캠퍼스가 공사 제휴를 통해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 기업들을 유치하는 능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본인은 SUNY를 지원하고 뉴욕주 고등교육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Tax-Free NY에 포함된 사항:

- **면세 커뮤니티:** 뉴욕시 바깥의 모든 SUNY 캠퍼스 및 Westchester 북쪽의 지정된 사립대학들이 면세될 것입니다(판매세, 재산세, 영업세/법인세 면제). 캠퍼스를 둘러싼 최대 200,000 평방피트가 면세 커뮤니티에 포함될 것입니다.
- **직원 소득세 면제:** Tax-Free NY 커뮤니티에 차리는 기업의 직원들은 소득세 납부가 면제될 것입니다.
- **사립대학의 상업 공간에 추가 300만 평방피트:** Tax-Free NY에 의거 300만 평방피트의 상업 공간을 뉴욕주 사립대학들이 활용하고 20건의 전략 주 자산도 면세 지정될 것입니다.
- **Tax-Free NY 대상 기업:** 대상 기업에는 신규 기업, 뉴욕주로 이전하는 주의 기업 및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뉴욕주 조업을 확대하는 기존 기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학문적 사명과 관계 있는 회사 및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가 포함됩니다.

SUNY의 64개 캠퍼스는 뉴욕주의 모든 구석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뉴요커들은 SUNY 캠퍼스 인근에 삽니다:

- 뉴요커들의 93%가 SUNY 캠퍼스에서 15마일 이내에 삽니다
- 뉴요커들의 97%가 SUNY 캠퍼스에서 20마일 이내에 삽니다
- 뉴요커들의 100%가 SUNY 캠퍼스에서 30마일 이내에 삽니다

인근 SUNY 캠퍼스를 찾으려면 뉴욕주의 투명성 웹사이트인 [Open.ny.gov](https://open.ny.gov)를 방문하십시오:

캠퍼스 지도: <https://data.ny.gov/d/cfb3-a8v8>

데이터세트: <https://data.ny.gov/d/3cij-nwhw>

Tax-Free NY는 미국의 “세금 수도”라는 뉴욕주의 평판을 뒤집기 위한 주지사의 작업을 지속합니다. 주지사는 취임한 이래 중산층 세율을 60년래 가장 낮은 율로 삭감하고, 주의 사상 최초 재산세 한도를 제정하고, 근 300,000개 소기업을 위해 MTA 인두세를 제거하거나 크게 줄이고, 중산층 가족에게 자녀 세액 감면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취임한 이래 뉴욕주, 특히 수 십년간 쇠퇴를 겪은 북부 지역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금년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주지사는 그의 경제 어젠다를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하였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지역경제개발협의회와 NY SUNY2020을 토대로 주지사는 혁신 핫스팟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뉴욕주의 연구 기관에서 탄생한 기술 혁신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5000만 달러의 벤처자본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Tax-Free NY는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CNSE)의 경제적 성공을 주도 지역에 복제할 것입니다. University at Albany 및 주정부와 제휴함으로써 CNSE는 성장하여 나노급 기술을 위한 탁월한 연구 대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 십억 달러를 민간 부문 투자에 끌어들이며 주도 지역을 상업적 나노 산업의 국제적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성공을 모범으로 하여 Tax-Free NY는 잠재력 있는 신생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의 신규 비즈니스 벤처를 여기 북부 뉴욕주에 데려오도록 유인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고등교육 기관과 제휴함으로써 생기는 자원뿐만 아니라 10년간 사업이 완전 면세되는 능력으로부터도 혜택을 볼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